

제 250호 · 2014년 4월 2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미국 서부항만 쓰나미 대비 계획 착수
2. 미 해운행정관, 미국 해운산업 붕괴 위험 우려 지적
3.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주요 물류시장 위축 예상
4. 중국, 식품류와 약품의 콜드체인화 증가

물류시장동향

1. 베트남 국영선사 Vinalines의 민영화 본격시작
2. DB Schenker, 아랍에미리트 Etihad철도와 JV 설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미국 서부항만 쓰나미 대비 계획 착수

- 다섯 개의 캘리포니아 항만들이 미래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준비
 - 새로운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핫스팟(Hotspot)을 확인하고 개선된 비상계획 수립이 목적
 -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에서는 과거 쓰나미 자료를 이용해서 샌디에고, LA/LB, 벤투라, 산타 크루즈와 그레센트 시의 새로운 쓰나미 대응지도를 만들 계획
 -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캘리포니아 지역 27개 항만에서 US\$1억 이상의 손실 발생
-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의 릭 윌슨(Rick Wilson) 선임엔지니어에 따르면 쓰나미 발생시 미국 서부항만지역에 막대한 피해 발생 예상
 - 최근 캘리포니아 쓰나미 프로그램과 US 지질조사국의 평가에 따르면 대형 쓰나미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지역에서 생성되면 모든 선박의 1/3을 침몰시키고, 캘리포니아 항만에서 2/3의 선박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시나리오 분석결과 쓰나미 발생 시 수억달러의 재산손상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복에 수 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 연구에 따르면 쓰나미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경우 80% 이상 감축 가능
 - 캘리포니아에는 쓰나미에 취약한 30개 이상의 항만과 마리나가 있으며, 특히 좁은 수로와 낮은 부두시설이 존재
 - 프로젝트의 목적은 예방시설 구축과 쓰나미 후 복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2015년까지 130개 이상의 항만과 마리나의 재해지도와 복구전략을 완성하는 것
 - 궁극적으로는 미국해일재해완화프로그램(US National Tsunami Hazard Mitigation Program)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 캘리포니아 지역 항만 전경 >

자료 : www.moffattnichol.com자료 : www.portstrategy.com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4.3.27.김우선 부연구위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미 해운행정관, 미국 해운산업 붕괴 위험 우려 지적

- 지난주 26일 미 하원 미 해운경비 및 해운소위원회(Coast Guard and Maritime Subcommittee)에서 Paul "Chip" Jaenichen 해운행정관은 미국 해운산업이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지적
 - 그는 현재 미국적 선박이 수송하는 정부 화물의 80%가 국방부 화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수송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 이에 따라 의회가 미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미국 해운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첨언
- 그는 미국의 주요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매년 6만 척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미국적 선박은 전체 선박의 2% 수준이라고 언급
 - 미국은 해운안보프로그램(Maritime Security Program:MSP)에 따라 미국적선의 높은 운항비용 상쇄를 위해 척당 3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화물의 감소에 따라 상업적 화물(commercial cargo)의 운송을 늘리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
 - 한편,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에 따라 미국은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물자의 최소 75%를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국적 선사들을 지원 중
 - 이와 관련 해운소위원회 Hunter의장은 현지 구매(local purchase)가 가능하도록 평화식량계획(Food for Peace program)을 개편하면, 미 농업인에 대한 위협이 되고, 해운인력이 실직되며, 국방화물 운송을 위한 선박공급량을 줄이면, 미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이에 대해 Jaenichen씨는 현지구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량원조의 비율을 약 25%까지 늘려도 200~27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 이 같은 미국 해운산업에 대한 붕괴 우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가 미국 해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이는 동 위원회 민주당 위원인 John Garamendi씨가 지적한 것으로 Jones-Act에 따라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적선으로 미국적 선원이 운송하는 선박(U.S.-built, U.S.-flagged and U.S.-crewed vessels)에 의해 LNG 수출이 이루어지면, 해운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그는 현재 미국의 LNG 수출을 위해서는 100척의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10년 이상 이러한 선박을 건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4.3.27.

김태일 부연구위원 (☎ 02-2105-2755, ktizorro@kmi.re.kr)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주요 물류시장 위축 예상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야기된 혼란이 중유럽 및 동유럽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물류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수입과 연계된 흑해 지역의 환적 물동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지난 10년간 지속된 러시아의 소비 붐에 따른 수입화물 증가로 터키와 루마니아는 컨테이너 화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Ro/Ro 화물 처리를 위한 환적항을 확대
- 또한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와 관련된 발트해 지역의 무역 및 운송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북독일,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항만들은 러시아와 연계된 많은 교역물량을 처리해왔으며, DFDS¹⁾, Unifeeder²⁾, Grimaldi³⁾ 등 기업들이 관련 물류서비스를 제공
 - 특히 핀란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만들은 러시아로의 주요 접근거점으로 이용
- 아울러 러시아와 중유럽 간 도로운송 분야는 기존에도 화물보험과 TIR 협약⁴⁾의 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화물이동 규제와 관련되기 보다는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과 더 큰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보다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조치로 러시아는 국내외적으로 물류투자 분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GEFCO⁵⁾는 서유럽화물을 러시아 철도로 유치하려는 기업전략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Deutsche Bahn Schenker가 개발한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철도서비스 또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⁶⁾
 - 런던증시를 통해 국내외 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을 조달해온 러시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Global Port 또한 자금조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1) 북유럽 최대 통합 운송 및 물류회사.

2) 북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피더 및 근해운송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물류회사.

3) 차량, Ro/Ro 화물, 컨테이너, 여객 등 해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통합물류회사.

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TIR Convention)은 도로운송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컨테이너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며, TIR 협약 체결당사국은 TIR 절차에 의해 운반되는 화물은 경유지 세관에서 수출입세의 납부나 또는 담보,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관세상 특례를 규정한 협약.

5)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푸조 시트로엥 산하의 물류 자회사이며, 현재 러시아 국영철도회사인 RZD(Russian State Railway)가 70% 지분을 보유함. 한편 RZD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까운 협력자로 서방 제재조치의 주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

6) 과거 정치적 간섭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방국가의 군사장비를 카자흐스탄을 지나 러시아를 통과하여 회수하는 철도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음.

- 또 다른 잠재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러시아 영공통과 부문
 - 과거 러시아는 독일 루프트한자가 시베리아에 위치한 한 공항을 항공화물 허브로 사용토록 하는데 협박 수단으로 영공통과권 회수를 사용
-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러시아 시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될 경우 향후 서유럽 및 중유럽의 대 러시아 수출(에너지, 자동차, 화학, 사치품 등 분야)은 러시아를 떠나 재편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3.25.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중국, 식품류와 약품의 콜드체인화 증가

- 중국의 전국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콜드체인 물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콜드체인물류는 방부제와 기타 첨가물을 가하지 않는 전제 아래 식품과 약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최대한으로 보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종류의 식품과 약품의 콜드체인화를 적용시킬 예정
 - 농수산물 가공공장과 약품생산 가공공장에도 중형규모의 콜드체인 설비 건설을 촉진시킬 예정
 - 식품과 약품의 안전관리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의식과 전체 생산방식의 엄격한 감독관리, 식품과 약품의 품질 보장 수준 제고를 목표
- 오는 4월24일-25일까지 상해에서 중국콜드체인물류 장기계획에 대한 22차 회의 개최 예정
 - 주요 의제인 부처간 경쟁에 미치는 정책효과, 콜드체인 투자방향과 발전구조의 관계, 신선물품의 온라인 거래 발전 현황, 정보플랫폼 공유와 자원의 통합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
 - 정부부처간의 경쟁 효과는 예를 들어 운수부,公安부, 상무부에서 “도시배송운수와 차량통행 관리 작업에 대한 통지”의 정책실현을 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물류정책환경 조성 and 물류관련 문제점 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의 현 콜드체인 창고 개수와 향후 수요량 예측 및 도시와 생산지의 콜드체인 시설 수준 등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관리 일체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일조
 - 정보플랫폼 공유와 자원의 통합 구성과 관련, 콜드체인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제공 및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 하는 것을 목표
- 중국 콜드체인 시스템의 체계화, 담당 기관 및 협력체들 간의 규범 통합 등을 실현하여 향후 중국의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은 물론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실천 방안 추진
- 중국의 콜드체인 시설 확충 및 처리 품목의 증가가 예상되어 콜드체인 시장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

자료 : www.cnlenglian.com, 2014.3.20.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물류시장동향

□ 베트남 국영선사 Vinalines의 민영화 본격시작

- 베트남에서 가장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국영선사 Vinalines(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가 컨설팅업체에 기업가치평가를 맡김으로써 본격적인 민영화를 시작
 - Vinalines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2014년 9월 말까지 기업가치평가 발표 예정
- 2014년 3월 초 베트남 교통부 차관은 Vinalines의 지분 70%까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지역 매체에 밝힘
 - 또한 Vinalines가 소유하고 있는 Saigon, Nghe Tinh, Cam Ranh, Can Tho 그리고 Nam Cam 등 5개 항만의 지분 역시 매각 계획
- Vinalines의 등록자산은 약 5억 700만 달러이며, 해상운송, 항만운영, 그리고 해양서비스 등 3개 사업영역에 집중
 - Vinalines는 2012년 말까지 총 2억 달러의 누적손실을 기록하여 국가소유 기업 중 비효율성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례 기업
 - 베트남 국내 은행들이 수조원의 대출상환을 연기해 줌으로써 Vinalines의 부채는 2011년 23억 달러에서 2012년 말 16억 달러로 감소

자료 : www.cargoasianews.com, 2014.3.24.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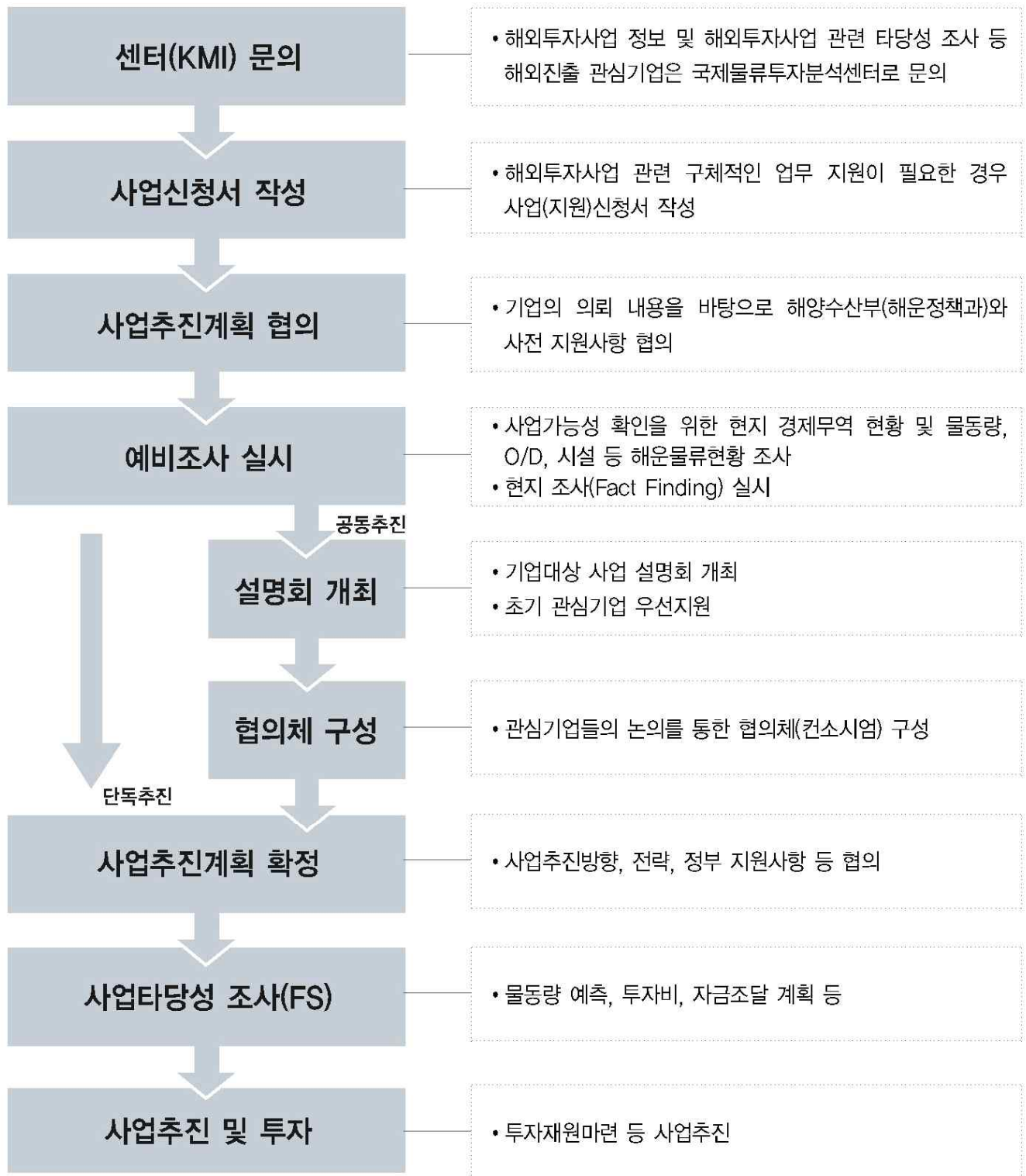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DB Schenker, 아랍에미리트 Etihad철도와 JV 설립

- JV 설립으로 철도에 관한 전문지식 공유와 아랍에미리트 철도의 공동운동을 위한 초석 마련
 - 양사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회사인 Etihad Rail DB를 통해 1단계 사업으로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며, 미래 사업으로 Etihad가 보유한 철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수행할 계획
 - Etihad철도의 대표인 Nasser Alsowaidi씨는 DB Schenke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Etihad철도를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키고 아랍에미리트의 철도가 현대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
 - JV는 앞으로 Etihad의 철도 네트워크를 세계적 수준의 효율을 가진 통합된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
 - Etihad Rail DB는 Etihad의 철도 네트워크의 운영을 담당하며, 첫 수송사업으로 내륙지방인 Shah와 Habshan에서 과립형 유황을 선적하여 264km에 달하는 철도를 통해 Ruwais로 수송할 계획
 - DB Schenker의 모회사 Deutsche Bahn의 대표인 Rüdiger Grube씨는 Etihad의 철도 네트워크를 새로운 시대의 운송수단으로 평가하며, DB Schenker 철도의 한 부분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

자료 : www.breakingtravelnews.com, 2014.3.2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